



1899-0001

예약상담시간 평일 08:30~18:00 토요일 08:30~12:30

www.emc.ac.kr

EMC 대전을지대학교병원
EMC 노원을지대학교병원
EMC 강남을지대학교병원
EMC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제대 관리

탯줄은 보통 생후 6~10일 사이로 떨어지게 되는데 감염의 통로가 될 수 있으므로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소독 방법

소독용 알코올을 소독솜에 묻혀 하루에 2~3회 목욕 직후 소독합니다. 탯줄이 떨어진 후에도 소량의 혈액이 보일 수 있으므로 배꼽이 깨끗해질 때까지 소독해줍니다.

* 냄새가 나거나 분비물이 있고 주위 피부가 붉게 보일 경우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필요합니다.

예방 접종

B형 간염 예방접종

출생 시, 1개월 후, 6개월 후 접종합니다.

* 산모가 B형 간염 보균자인 경우 면역 백신의 접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BCG 접종

생후 4주 이내 아기의 체중과 상태를 확인하여 전문의의 권고에 따라 접종하시면 됩니다.

* 아기가 아프거나 다른 사정으로 인해 정해진 시기에 시행하지 못할 경우 전문의와 상의하는게 좋습니다. 추가 예방접종은 아기 수첩을 참고해주세요.

황달이란?

황달이란 간 기능의 미숙으로 인하여 모든 신생아는 생후 2~3일부터 보름 정도 황달이 보이며, 대부분 생후 5일 정도부터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황달은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보이면서 얼굴 -> 가슴 -> 배-> 다리 순으로 진행되었다가 사라지게 되며 전신적으로 노랗게 보이거나 구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선천성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의 대사 장애로 인한 질환이며, 대개 심한 지능 장애, 뇌 장애, 간장 및 신장 이상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는 치료를 하더라도 손상된 세포가 치유되지 않으므로 평생 정신지체이나 장애아로 살거나 사망하게 됩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질환은 지금까지 약 600여 가지 정도가 보고되었고,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질환도 많습니다. 이중 가장 흔한 몇 가지 질환에 대해서만 현재 선별검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기 발견

조기에 발견하여 특수 식이요법이나 의학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 이들 질환에 의한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여 정신지체 등의 증상 발현을 최대한 줄여줄 수 있으므로 이의 조기 발견은 매우 중요합니다.

* 퇴원하는 날 발뒤꿈치에서 채혈하므로 채혈 흔적이 보일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2주 이후에 알 수 있습니다. 결과가 비정상일 경우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며 정상일 경우는 소아청소년과 진료 시 결과지를 드립니다.



신생아실
Newborn

아기
돌보기



EMC 을지대학교의료원

모유 수유

- 보통 1시간 30분이나 2시간 간격으로 매일 8~12회 정도가 적절하지만, 특별히 시간과 횟수를 정해놓을 필요 없이 아기가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 양쪽 유방을 10~15분씩 교대로 수유하며 다음 수유 시에는 마지막 물렸던 쪽을 먼저 수유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유 시 주의할 점

수유 시에는 공기도 같이 먹게 되므로 수유 후 그대로 눕히면 공기가 올라와 구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아기를 세워서 안은 상태로 가볍게 등을 두드리거나 쓰다듬어 주면서 트림을 시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으면 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분유 수유 방법

- 모유 수유가 불가능할 경우 선택합니다.
- 신생아는 약 2~3시간 간격으로 진행합니다.
- 소독된 젖병을 사용합니다.

1회 수유량은 40~60cc 정도이며 아기가 성장함에 따라 서서히 증량합니다.

* 분유 조제 시 끓여서 따뜻하게 식힌 물을 사용하며 분유 조제 방법을 확인하세요!

기저귀를 갈아줄 때

소변

- 하루에 20회까지 배설하기도 합니다.
- 기저귀에 주황색~붉은색(요산염소변)이 보일 경우 혈액과 구분해야 합니다. (혈액인 경우 기저귀를 물에 담갔을 때 사라지지 않습니다)
- 여아의 경우 산모 호르몬의 영향으로 혈액이 보이는 가성 월경이 보일 수 있습니다.

대변

- 출생 후 1~3일 : 끈적끈적하고 냄새가 없는 암녹색의 태변
- 3일~2주 : 연노랑이나 연초록색으로 몽글몽글한 형태의 물기 많은 이행변
- 2주 이후 : 황색에서 옅은 갈색의 변
- * 이행변을 보는 시기에는 설사와의 구별이 중요합니다.
- * 설사는 덩어리 없는 물만 보는 묽은 변입니다. 수회 계속되면 탈수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필요합니다.

기저귀 발진

이행변을 자주 배설할 경우 항문 주위의 피부가 태변에 의해 자극을 받아 생길 수 있습니다. 처치는 특별한 연고의 도포보다는 기저귀를 갈 후 흐르는 물에 엉덩이를 자주 씻겨 주고 기저귀를 열어 놓은 상태로 공기 중에 충분히 건조시켜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기저귀 발진은 이행변 보는 시기가 지나면 자연적으로 호전되며 대변이 좋아진 후에도 호전이 없다면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필요합니다.

- * 모유를 먹는 아기는 분유를 먹는 아기보다 변이 묽고 횟수가 많습니다.
- * 이행변 보는 시기에는 열이 나고, 보채거나 많이 먹으려고 하므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아기가 구토를 해요

- 신생아는 위장관 기능 미숙으로 수유 후 소량씩 흘리는 역류 증상이 보일 수 있습니다.
- 구토를 할 경우 우유가 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거나 옆드린 자세를 취한 후 등을 두드려 줍니다.
- * 분수처럼 내뿜듯이 토하거나, 구토한 양상이 녹색이나 갈색 또는 혈액이 섞여 있는 경우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필요합니다.

아기 몸이 뜨거워요

- 정상 체온은 36.5~37.5℃입니다.
- 아기를 만졌을 때 따뜻한 감이 들면 열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여 체온을 측정합니다.

체온 37.5~38℃의 미열

- ① 주위환경이 더운지 확인 후 아기의 저고리와 포를 열어 둡니다.
- ② 반복되는 미열이 있으면 미온수 목욕을 시켜줍니다.
- ③ 그 후에도 미열이 반복되면 감염 초기 증후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필요합니다.

체온 38℃ 이상의 고열

- ① 미온수 목욕을 합니다.
- ② 38℃ 이상의 열이 반복되면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필요합니다.

* 열이 나면 손발이 차고 몸통이 뜨끈뜨끈하게 만져집니다.

목욕하기

목욕 전

- 필요한 물품(욕조, 유아용 로션, 비누, 큰 타올, 기저귀, 갈아입힐 새 옷)을 준비합니다.
- 목욕물 온도는 38~40℃ 정도로 팔꿈치를 물에 담갔을 때 따뜻한 정도로 유지합니다.

목욕

- 목욕 시간은 10분 이내로 빠르게 씻깁니다.
- 아기를 목욕 수건으로 싸고 옆구리에 끼워 눈과 얼굴을 닦은 후 머리를 감겨줍니다.
- 아기를 욕조에 담가 몸통 -> 팔 -> 다리 순으로 닦아줍니다.
-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엄지와 검지 또는 엄지와 중지를 사용하여 아기의 양 귀를 막아줍니다.
- 목욕 시 아기의 전신을 관찰합니다.

목욕 후

- 물기가 남지 않도록 머리카락과 목 거드랑이 서해부 등 피부가 겹치는 부위를 신속하게 닦아줍니다.

실내 환경

- 실내 온도는 22~28℃가 적당합니다.
- 습도는 40~60%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생아는 면역기능이 미숙해서 청결을 소홀히 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깨끗한 환경과 규칙적인 청소가 필요합니다.
- * 갓 태어난 아기의 잦은 면회는 감염의 원인이 되고 집안에 전염력이 있는 가족이 있다면 아기를 격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